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 분석



영어교육전공

김 설 은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 분석

지도교수 조 윤 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설 은

김설은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8월 22일



주 심 응용언어학박사 오 준 일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송 호 림 (인)

위 원 교 육 학 박 사 조 윤 경 (인)

목 차

ABSTRACT	iv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과제	3
1.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5
2.1 2009 개정 교육과정	5
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6
2.3 영어 말하기의 성취 기준	8
2.4 영어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	10
2.5 선행연구 분석	12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5
3.1 분석 대상	15
3.2 분석 기준	19
3.2.1 말하기 성취 기준	19
3.2.2 소재 분석 기준	20
3.2.3 말하기 활동 분석 기준	22

3.2.4 의사소통 기능 분석 기준	24
3.2.5 전체 분석 기준	25
IV. 결과 및 논의	27
4.1 성취기준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27
4.2 소재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33
4.3 입력자료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35
4.3.1 언어적 입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36
4.3.2 비언어적 입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38
4.4 조직환경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40
4.5 활동유형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42
4.6 언어기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44
4.7 의사소통기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46
V. 결론 및 제언	50
참고문헌	53
부록	57
1. 하위 소재에 따른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 비교	57

표 목 차

<표 1> 2009 중학교 영어 교과과정의 주요 특징	7
<표 2> 중학교 1~3학년군 말하기 성취기준	9
<표 3> 분석대상 교과서	15
<표 4> A, B, C, D, E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계	17
<표 5> 소재 분석 기준	21
<표 6> 말하기 활동의 분석범주 및 평가기준	23
<표 7> 의사소통 기능 분석 기준	25
<표 8> 5종 교과서의 성취 기준 및 말하기 활동 분석 기준	26
<표 9> 영역 성취 기준에 따른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 비교	28
<표 10> 학습 내용 성취 기준에 따른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 비교	31
<표 11> 상위 소재에 따른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 비교	33
<표 12> 언어적 입력에 따른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 비교	36
<표 13> 비언어적 입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비교	38
<표 14> 조직 환경에 따른 말하기 활동 비교	40
<표 15> 활동 유형에 따른 말하기 활동 비교	42
<표 16> 언어 기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비교	44
<표 17>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비교	47

An Analysis of Speaking Activities in Middle School English 1 Textbooks
Based on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Kim, Sull-eu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ny aspects of "speaking activitie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which were published for the first-grade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upon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is study, five middle school textbooks written by five different groups of authors were randomly selected and examined using seven different qualitative criteria. The seven criteria are the evaluations for develo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eaking activities and overall standards of the revised curricula, activity themes, input data, settings, activity types, language skills, and communicative functions. The result of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standards of achievement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were properly reflected in some textbooks whereas the others either omitted or biased our criteria. Despite many interesting and familiar subject matters, all five textbooks lacked subject matters for creativity and cultural understanding. In regards to input data of the speaking activities, dialogue form and illustration were popular as shown an attempt to induce students' interests for the motivation of speaking activities. In conclusion,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to provide better context in order to accomplish our criteria with respect to speaking activities for curriculum authors; clearer and more articulate achievement standards; more group activities than individual work for students to learn team-work skills; and lastly more balanced proportional composition of various activities such as creative problem-solving tasks.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어 말하기 능력은 영어권 화자와는 물론이고 비영어권 화자와의 접촉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다. 또한 최근 각종 기업체의 신입사원 모집이나 인턴사원 모집 요건에서 TOEIC Speaking이나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 등 공인시험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준된 영어 말하기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Swain(2000)에 따르면, 언어적 출력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맥화 되고 유의미한 제 2 언어 사용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목표 언어에 대한 가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과 이론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중등 영어 교육에서의 말하기 교육은 필수적이다. 또한 말하기 수업에서 체계적인 수업설계와 다양한 말하기 활동들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보다 정확하고 유창하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세계 속의 성공적인 영어 화자가 되는 데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한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되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횟수와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학습 자료로서 학습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학습내용을 제공한다(권미숙, 2009; 나경희 & 송희심, 2010; 이의갑, 2007). 즉, ICT의 활용이나 코퍼스 활용 등 여러 가

지 수업 자료의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된 수업 자료는 교과서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영어 교육에서 실제 교과서에 의존하는 정도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보다 중학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남동식 & 박매란, 2005; 부경순, 이완기, 이정원, 최연희, 2003). 따라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학습도구로 사용되는 영어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교의 말하기 수업의 큰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교과서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을 분석한 선행 연구(김은주, 2001; 김부연, 2006; 배두본, 2006; 전인재, 2006; Meurant, 2010)의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유의미한 의사소통 과업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질문에 대한 제한된 응답이나 언어 형태에 관한 활동들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 등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활동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언어기능에 대한 보다 다양한 활동과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이 교과서에 증가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듯이, 남녀평등, 민주 의식 고취, 애국심, 통일 및 안보 의식 함양에 관한 주제 제시, 도덕적 태도표현과 상상하기 기능 활동 등이 향후 교과서에 더 추가되어야 한다(주형미, 김성혜, 이영아, 윤지환, 2011).

더욱이,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12월 23일에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고시함(교육과학기술부, 2009b)에 따라 총 12종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가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개정 교과서는 2013년 3월부터 전국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제작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

는 말하기 성취기준과 소재를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말하기 활동의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 과제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현행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이 2009 개정에 따른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부합하는가?
- 2) 현행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이 2009 개정에 따른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소재들과 부합하는가?
- 3) 현행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의 특성(입력자료, 조직 환경, 활동유형, 언어기능, 의사소통기능)은 어떠한가?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12종의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중에서 5종의 교과서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교과서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만을 채택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전체 학년군에 대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과 2011년에 발표된 학년군 단위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알아보고 영어 말하기의 중요성과 선행연구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1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란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가는 실천적 행위이며, 국가 교육과정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각 학교는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을 기반으로 각 학교의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한편, 교육과정이 1차부터 7차까지 개정되어 온 사실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논의와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을 국가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이라는 개정 취지와 목적을 반영하여 개발·제작되어, 2009년 12월 23일에 고시되었고, 이는 2013년 3월부

터 전국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적용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총론)에서는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2)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3)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4) 지나친 암기 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임찬빈 외(2011)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교육과정(이하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으로 약칭)의 기본 방향이자 변화 내용을 3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1) 학교급간, 학년군간, 교과목간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2)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및 창의성·인성 함양 도모, 3) 영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영어 교육 강화이다. 또한 영어교육을 통해 인성,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며 외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양성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닌다.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2009 중학교 영어 교과과정의 주요 특징(교육과학기술부, 2011)

영역	중학교 영어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일상적인 영어 사용에 자신감을 기른다. · 친숙하고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외국의 문화와 정보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주제, 상황, 과업 등을 고려한 내용 · 상호 작용에 적합한 내용 · 영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 · 창의성 및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과 실제적인 의사소통 활동에 도움이 되는 언어 ·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 ·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한 언어 · 소리와 문자의 관계, 소리와 의미의 식별, 말의 연결, 말의 속도에 따른 음운 변화, 상황에 따른 음운 변화 및 자연스러운 발화 등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언어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1~3학년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 750 낱말 내외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자신감과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 친숙하고 일반적인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창의성과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재로 제시하였으며, 문화 영역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타문화를 이해하는 기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어휘의 수에 있어서는 이전의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어휘 수(840 낱말 내외)보다 줄어든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2.3 영어 말하기의 성취 기준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영어 말하기 성취기준을 상위 기준인 ‘영역 성취 기준’ 5가지와 하위 기준인 ‘학습내용 성취 기준’을 각 영역 성취 기준에 따라 각각 2~5가지씩을 제시하고 있다. 영역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 내용을 말한다. 둘째, 대상이나 자료를 묘사하거나 설명한다. 셋째, 대상이나 자료를 묘사하거나 설명한다. 넷째, 흐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경험이나 의견을 말한다. 이에 학습내용 성취 기준을 덧붙여서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전체 말하기 성취기준을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표 2> 중학교 1~3학년군 말하기 성취기준(교육과학기술부, 2011)

말하기 성취 기준	
영역 성취 기준	학습 내용 성취 기준
중심 내용을 말한다.	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주요 내용을 묻고 답한다. 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주제 및 요지를 말한다.
세부 내용을 말한다.	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세부 내용을 묻고 답한다. 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짧은 글을 읽고 차이점을 말한다.
대상이나 자료를 묘사하거나 설명한다.	1) 주변의 친숙한 대상을 간단히 묘사한다. 2) 주변의 친숙한 대상에 대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를 묻고 답한다. 3) 간단한 일상 용품의 사용법 등을 순서에 맞게 설명한다. 4)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실물, 그림, 도표 등의 자료를 간단히 설명한다. 5)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차나 방법을 묻고 답한다.
흐름을 말한다.	1)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추측하여 말한다. 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묻고 답한다.
경험이나 의견을 말한다.	1)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한다. 2) 일상생활에 관한 느낌이나 의견을 말한다. 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이나 대화문을 활용하여 간단한 역할극을 수행한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 1~3학년군의 말하기 영역 성취 기준은 5가지로 이전의 영어과 교육과정의 말하기 영역 성취 기준과 비교하여 1가지 성취기준이 축소되었다. 또한 이전의 영어과 교육과정의 말하기

성취 기준은 1, 2, 3학년을 각각 따로 구분하되 상위·하위 성취기준의 구분 없이 총 19가지로 제시되었는데,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1~3학년을 학년군으로 묶고 상위 5가지, 하위 14가지의 학습내용 성취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년군의 연계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말하기 성취 기준은 각 학년을 학년군으로 묶고 성취기준을 상위·하위로만 제시하였을 뿐 여전히 말하기 성취 기준들이 불명확하고 명시적이지 않은 것(예: 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주요 내용을 묻고 답한다’에서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2)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추측하여 말한다’에서 ‘짧은 글’이 얼마나 짧은 글인지 명시적이지 않다.)으로 드러나 향후 더욱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성취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4 영어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

기존의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듣기와 읽기 및 어휘 등 이해 기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말하기와 쓰기와 같은 표현 기능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이미 많은 연구들(김금선, 김태은, 김혜영, 차경환, 2011; 박지선 & 이문복, 2012; 박현식, 2013)이 ‘수능 영어 평가 방식’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학 입시가 중요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수능 영어 시험은 교육 현장에도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의사소통의 측면보다는 입시 위주의 청해와 독해, 즉 이해 능력의 신장과 평가에 더욱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온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영어 교육 분야의 연구들(박재은 & 안태연, 2013; 신동일, 2005; 오준일, 2006)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동향은 점차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말하기와 쓰기의 학습·지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어의 ‘4기능 통합’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영어 능력 평가인 NEAT(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의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는가 하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도 말하기와 쓰기 기능의 성취 수준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식이 크게 개선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과 영어권·비영어권 화자와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 말하기 능력이 급격히 중요해진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말하기 학습·지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 각종 기업에서 신입사원의 자격 요건 중 영어 말하기 능력이 빠지지 않고 요구되는 현실적 상황에 부합하기 위해서이다.

Swain(2000)은 언어적 출력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목표 언어에 대한 가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맥화되고 유의미한 제 2언어 사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녀는 Lapkin과의 연구(Swain & Lapkin, 1995)에서도 ‘목표 언어의 출력은 목표 언어 학습 시 필수적인 특정한 인지적 과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목표 언어 수준과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언어 성취 수준 사이의 간격(gap)을 확인하게 하는 언어상위적 기능(metalinguistic function)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 2 언어 학습자들은 언어적 출력 중 하나인 말하기를 연습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수준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이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최근의 동향과 이론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중등 영어 교육에서의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또한 말하기 수업에서 체계적인 수업설계와 다양한 말하기 활동들의 제공은 학생들이 보다 정확하고 유창하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세계 속의 성공적인 영어 화자가 되도록 하는 데 기틀을 마련한다.

2.5 선행연구 분석

영어 교과서 분석 연구는 학습자에게 보다 나은 학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의 부합성의 측면과 함께 다양한 측면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김은주(2001)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듣기와 말하기를 분석한 결과,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인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적극 반영하고는 있으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나 추론 등을 요구하는 활동은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은 제한된 응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적극 활용할 것과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급적 많이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부연(2006)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과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말하기 과업이 다른 기능 즉 듣기, 읽기, 쓰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말하기 과업 자료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 불만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또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과업 수행활동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

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부정적으로 나타나 말하기 과업 자료 및 과업 수행 활동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말하기 과업의 문장이 난해하고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지적하였다.

전인재(2006)는 12종의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과업활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업활동 소개문이 ‘참여적 활동’을 안내함으로써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있었으며, 실생활 맥락에서 추출한 다양한 시각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업 활동의 유형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추구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유형이 매우 적은 분포를 보인 점을 지적하면서 과업 활동이 담고 있는 소재로 학습자의 심미적 심성과 교양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소재가 더 많이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전인재(2006)의 연구는 과업 활동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목적과 의도가 본 연구와 유사점이 많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인재(2006)의 분석 기준틀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조직한 다음, 분석표를 만들고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말하기 과업을 살펴보았다.

주형미 외 3인(2011)은 교과서의 선진화를 위한 초·중등 영어 교과서 개선 연구에 참여하였다. 특히, 구성체제와 내용 개선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구성적인 측면으로는 전형적인 PPP(presentation - practice - productin)의 모형 등의 비슷한 단원 전개 구성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단원 전개의 흐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교양, 개인의 복지 증진, 민주 의식, 애국심 함양 등의 소재를 좀 더 교과서에 포함시켜 소재의 다양화와 문화 관련 교수·학습의 다양화를 추구해야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기능의 확대, 통합 언어 기능 활동이 보다 다양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Meurant(2010)는 교과서의 선정에 보다 관심을 두었다. 그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EFL과 ESL 교과서 선정에 대해 연구해 본 결과, 영어 교과서의 선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영어의 종류(미국 영어 또는 그 외 국제 영어), 미래의 EFL 교수 방법, 그리고 정보 통신 기술을 꼽았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혼합(blended) 언어 교육, 디지털 매체, 온라인 평가와 학습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습자들을 국제화 시대에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혼합된(blended) 영어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다양성, 다언어주의, 자기주도 학습 또한 영어 교과서의 선정과 관련된 논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Meurant의 연구는 미래의 영어 교과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사용횟수와 의존의 정도가 매우 높은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의 활동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교과서에 반영한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판된 중학교 1학년 개정 영어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는 앞으로 국가차원의 영어 교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교과서는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7차 교육과정의 2009 개정에 따라 제작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총 12종 중에서 5종의 교과서를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편의상 각 교과서의 출판사 명을 가나다순에 따라 A, B, C, D, E로 표기한 후 다음과 같이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분석대상 교과서

명칭	출판사	저자	교과서 명	단원수
A	교학사	권오량 외 6인	Middle School English 1	11
B	금성출판사	민찬규 외 10인	Middle School English 1	11
C	두산동아	김성곤 외 10인	Middle School English 1	10
D	지학사	양현권 외 9인	Middle School English 1	10
E	천재교육	김진완 외 9인	Middle School English 1	10

분석 대상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만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선택교육과정인 고등학교 교육과는 달리 중학교 교육은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교 1학년은 2013년 3월부터 2009개정 영어 교과

서를 처음으로 학급에서 사용하는 학년이다. 이렇게 선정된 5종 교과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A, B, C, D, E 교과서의 단원을 구성 체계별로 분류하고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삼은 말하기 영역을 밑줄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표 4>로 정리하였다.



<표 4> A, B, C, D, E 교과서의 단위 구성 체계

단위 구성체계	교과서				
	A	B	C	D	E
도입	Preview Warm Up	<u>Starting Out</u>	<u>Before You Begin</u>	<u>Knock Knock</u>	<u>Warm Up</u>
듣기	<u>Listen & Speak 1,2</u>	Listen Up	<u>Listen and Talk 1,2</u>	<u>Listen and Speak 1,2</u>	<u>Listen and Speak 1,2</u>
말하기	<u>Act Out Let's Communicate</u>	<u>Speak Up Talk, Talk, Talk</u>	<u>Put It Together</u>	<u>Conversation Real-life Task</u>	<u>Communication Task</u>
읽기	<u>Before You Read</u> Read & Do <u>After You Read</u>	<u>Before You Read</u> Read On <u>After You Read</u>	<u>Before You Read</u> Enjoy Reading <u>After You Read</u>	<u>Before You Read</u> Read Reading	<u>Before You Read</u> Read <u>After You Read</u>
어휘·어법	<u>Focus on Language</u>	<u>Language Focus</u>	<u>Language in Use</u>	Writing-Lan guage Focus	<u>Focus on Language</u>
쓰기	<u>Think & Write</u>	<u>Write On</u>	Think and Write	Writing Task	<u>Writing Workshop</u>
통합 활동 및 정리	<u>Project Work</u> <u>Let's Check</u> Culture Plus	<u>Project Work</u> Zoom In, Zoom Out Check Up	<u>Project</u> Around the World <u>Check Up</u>	<u>Project</u> Around the World <u>Check Up</u>	<u>Think Outside the Box</u> Understand Cultures <u>Wrap up</u>

※참조: <표 4>는 5종 교과서를 단위 구성 체계별로 나타낸 다음, 교과서 내의 전체 활동 중에서 말하기 활동이 포함된 영역만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먼저, 단원의 구성 체계는 5종 교과서 모두 ‘도입→듣기→말하기→읽기→어휘·문법→쓰기→통합 활동 및 정리’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에는 간단한 활동을 하며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짐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림을 보며 각 인물의 특징에 대해 짝과 말해보기와 같은 간단한 말하기 활동이 제시된 경우가 있다. 듣기와 말하기에는 다양한 그림, 사진, 표 등을 사용하여 단원의 주요 의사소통 표현을 듣고 말해보도록 하고 있다. 특히, B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A, C, D, E)는 듣기와 말하기를 통합한 영역("Listen & Speak" 또는 "Listen & Talk")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듣기와 말하기가 대인 간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의 주요한 기술로 분류되는 점(Murphy, 1991)과, 두 기능이 동시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읽기는 5종 모두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글을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읽기 전 활동은 학생들의 읽기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개인경험 및 의견나누기 등의 간단한 말하기 활동이 나타나 있다. 언어 형식과 관련된 활동(어휘·어법 및 쓰기)에서도 말하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림을 보며 주어진 언어 형식을 사용하여 말하기와 같은 경우이다. 통합 활동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타 기능과 통합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 말하기 기능에 초점을 두어 5종의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 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4>를 5종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 영역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였다. ‘말하기 활동’과 ‘비(非)말하기 활동’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모든 활동의 소개문 중에서 “말해 봅시다”, “이야기해 봅시다”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말하기 활동임을 명시하는 단어가 사용된 활동만을

말하기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분석은 5종 교과서 각 단원 별 모든 말하기 활동을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며 총 2회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상호 비교 검토하였다. 평가자 내 일치도는 97%였다.

3.2 분석 기준

본 연구는 선정된 5종 영어 교과서의 내용을 말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의 기본방향 및 성취 기준의 부합성과 학습활동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및 성취 기준의 부합성은 말하기 성취 기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둘째, 말하기 활동의 특성은 전인재(2006)와 주형미 외 3인(2011)의 분석 범주 및 평가 기준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조직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3.2.1 말하기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어과 교수·학습과 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김미경, 임찬빈, 주형미, 이영주, 김성혜, 송민영, 박지선, 이영아, 김인석, 이현우, 김영숙, 강성우, 김연희, 박한준, 조지형, 박제윤, 안희성, 2012). 따라서 말하기 성취 기준은 교과서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이 영어과

기본 방향 및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에 해당한다.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에서는 말하기 성취기준을 상위 5가지의 영역 성취 기준과 하위 14가지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구체적인 성취기준은 <표 2>를 참조).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말하기 활동을 크게 5가지 영역 성취 기준(‘중심내용 말하기’, ‘세부내용 말하기’, ‘대상이나 자료 묘사 혹은 설명’, ‘흐름 말하기’, ‘경험이나 의견 말하기’)에 따른 14개의 학습 내용 성취 기준으로 분류하여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별책 14호]에서는 각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의 예를 이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심 내용을 말한다’의 1)의 경우, ‘전화, 대화, 여행 계획, 가족회의 등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를 듣고 중심화제에 관해 묻고 답하기’, 2)의 경우, ‘짧은 이야기나 간단한 신문 기사를 읽고 교사가 제시한 예시 낱말을 활용하여 글의 요지 말하기’ 등이 학습 활동의 예로 제시되어 있다.

3.2.2 소재 분석 기준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소재들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미래사회 적응 능력, 문화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자질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총 19가지의 소재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전인재(2006)의 분석 기준을 재조직하여 표를 마련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제시한

19가지 소재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소재 분석 기준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소재 분석 기준

소재	
상위항목	하위항목
일상생활	일상생활 개인생활
	가정생활과 의식주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오락·여가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운동 등 여가 선용
자연 이해	동·식물 또는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
	환경 문제, 자원과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등 환경 보전
문화 이해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 우리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소개
예술, 창의력 신장	문학, 예술 등 심미적 심성을 기르고 창의력, 상상력을 확장
미래사회 적응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
	진로 문제, 직업, 노동 등 개인 복지 증진
세계 민주 시민	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민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
	공중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책임감
	애국심, 평화, 안보 및 통일
일반교양 및 학문적 소양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수학, 과학, 교통, 정보 통신, 우주, 해 양, 탐험 등 일반교양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술 분야의 학문적 소양

<표 5>의 소재 분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소재를 ‘일상생활’, ‘오락·여가’, ‘자연이해’, ‘문화이해’, ‘예술, 창의력 신장’, ‘미래사회 적응’, ‘세계 민주 시민’, ‘일반교양 및 학문적 소양’과 같이 8가지 상위항목으로 분류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이는

전인재(2006)가 분류한 소재의 상위항목 5가지(일상생활, 가치관 형성, 문학 예술, 과학정보, 오락시사, 문화이해)를 본 연구에서 보다 세분화시킨 것이다. 이를 토대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들의 소재를 분류하고 각 소재 항목에 따른 분포 비율을 고찰하였다.

3.2.2 말하기 활동 분석 기준

전인재(2006)는 교과서에 제시된 과업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로 ‘입력자료(언어적, 비언어적)’, ‘조직환경’, ‘활동유형’, ‘언어기능’, ‘언어표현’, ‘과업목표’, ‘의사소통 주제’, ‘의사소통 기능’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이들 중 ‘입력자료’, ‘조직환경’, ‘활동유형’, ‘언어기능’, ‘의사소통 기능’을 분석도구로 삼았다. 또한 본 연구는 말하기 기능에 초점을 두어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언어기능’은 ‘말하기 및 말하기와 타기능과의 연계’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6>은 이를 정리하여 나타냈다.

<표 6> 말하기 활동의 분석범주 및 평가기준(전인재, 2006을 변형)

분석기준	세부사항
언어적 입력자료	대화체, 비대화체, 일방적 연습지시, 참여적 활동 안내
비언어적 입력자료	만화적 삽화, 사실적 사진, 실용적 안내표지, 도표 및 기타
조직환경	개별활동(1인), 짝활동(2인), 모둠활동(3~7인)
활동유형	시청각 관련활동, 의사소통관련활동, 가치판단 관련활동,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
언어기능:	말하기
개별적 언어기능	듣기-말하기, 읽기-말하기, 쓰기-말하기,
통합적 언어기능	읽기-쓰기-말하기

<표 6>과 같이 말하기 활동 텍스트에 제시된 입력 자료를 언어적 자료와 비언어적 자료의 속성에 따라 분석하여 입력 자료의 분포 비율을 살펴 보았다. 또한 말하기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조직 환경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각 교과서별 그 제시 비율을 비교 분석한 다음, 각 조직에 따른 활동 참여자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 환경을 고찰하였다. 말하기 활동 유형은 과업활동의 유형 분류를 연구한 학자들(박점복, 1998; Pica, Kanagy, & Falodun, 1993; Willis, 1996)이 공통으로 제시한 네 가지 활동 유형을 기초로 교과서별 분포 비율을 분석하였다. 말하기 활동 유형의 ‘시청각 관련 활동’으로는 시청각 자료를 토대로 묘사하기, 추측하여 말하기 등과 같은 활동이 있으며, ‘의사소통 관련 활동’에는 인사, 소개, 정보교환, 역할연습, 정보 차 게임 등이 있다. 또한 ‘가치판단 관련 활동’에는 참-거짓 판별하기, 순서 정하기, 내용 일치(불일치), 분류하기, 비교하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에는 인터뷰, 설문 등 여러 단계의 하위 활동을 기초로 하여 과업 참여자와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창의적 활동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이므로 언어기능은 말하기 및 말하기와 타기능의 연계 측면에서 각 교과서별 분포 비율을 고찰하였다.

3.2.4 의사소통 기능 분석 기준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별책 14호]에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의사소통 기능을 상위 항목 11개와 하위 항목 122개 및 그에 따른 예시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형미 외 3인(2011)은 학자마다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며, 교육 과정에 제시된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기능을 7가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형미 외 3인(2011)의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표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5종 영어 교과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사소통 기능 분석 기준을 나타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의사소통 기능 분석 기준

의사소통기능 분류
친교활동
사실적 정보 교환
지적 태도 표현
감정 표현
도덕적 태도 표현
지시와 권고
상상하기

말하기 활동의 의사소통기능은 ‘친교활동’, ‘사실적 정보 교환’, ‘지적 태도 표현’, ‘감정 표현’, ‘도덕적 태도 표현’, ‘지시와 권고’, ‘상상하기’와 같이 총 7가지 기능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도덕적 태도 표현’ 과 ‘상상하기’ 기능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기본 목표 중의 하나인 ‘도덕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성 교육’에 해당하는 기능이므로 분석하는데 더욱 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2.5 전체 분석 기준

이상의 분석 기준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분석 기준을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표 8> 5종 교과서의 성취 기준 및 말하기 활동 분석 기준

분석기준	세부사항
2009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성취기준(상위영역, 하위영역)
2009개정 교육과정의 소재	일상생활, 오락·여가, 자연 이해, 문화 이해, 예술, 창의력 신장, 미래사회 적응, 세계 민주 시민, 일반교양 및 학문적 소양
언어적 입력자료	대화체, 비대화체, 일방적 연습지시, 참여적 활동 안내
비언어적 입력자료	만화적 삽화, 사실적 사진, 실용적 안내표지, 도표 및 기타
조직환경	개별활동, 짝활동, 모둠활동
활동유형	시청각 관련활동, 의사소통관련활동, 가치판단 관련활동,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
언어기능	
개별적 언어기능	말하기
통합적 언어기능	듣기-말하기, 읽기-말하기, 쓰기-말하기, 읽기-쓰기-말하기
의사소통기능	친교 활동, 사실적 정보 교환, 지적 태도 표현, 감정 표현, 도덕적 태도 표현, 지시와 권고, 상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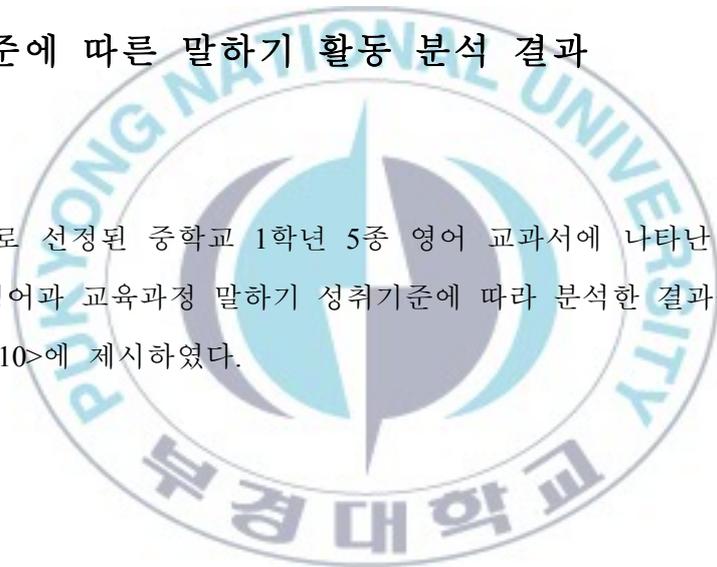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에 분포된 정도를 살펴보고,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소재가 말하기 활동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과업활동의 구성요소인 입력자료, 조직 환경, 활동 유형, 언어 기능, 의사소통 기능의 측면에서도 말하기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은 현재 교과서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이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향후 보다 나은 교과서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인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말하기 성취기준 및 말하기 활동의 특성에 따라 전체 12종의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중 5종의 교과서를 임의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4.1 성취기준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중학교 1학년 5종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말하기 활동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말하기 성취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각각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 영역 성취 기준에 따른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 비교

교과서 영역성취기준	A	B	C	D	E	평균
중심내용 말하기	3 (2.8%)	2 (2.4%)	-	-	3 (2.3%)	2 (1.5%)
세부내용 말하기	8 (7.5%)	2 (2.4%)	12 (9.8%)	4 (4.2%)	2 (1.5%)	6 (5.1%)
대상이나 자료 묘사/설명	37 (34.9%)	43 (50.6%)	83 (68%)	39 (41.1%)	74 (56.1%)	55 (50.1%)
흐름 말하기	3 (2.8%)	3 (3.5%)	4 (3.3%)	-	10 (7.6%)	4 (3.4%)
경험이나 의견 말하기	55 (51.9%)	35 (41.2%)	23 (18.9%)	52 (54.7%)	43 (32.6%)	42 (39.8%)
전체	106 (100%)	85 (100%)	122 (100%)	95 (100%)	132 (100%)	108 (100%)

<표 9>는 5종 교과서를 분석한 것이다. 5종 중 A교과서를 제외한 B, C, D, E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에 가장 많이 반영된 성취 기준은 각각 50.6%, 68%, 41.1%, 56.1%, 50.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이나 자료 묘사 또는 설명’이었다. 이는 친숙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초급 단계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심 내용 말하기’는 교과서 전체 평균 1.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반영하는 성취 기준이었다. 이는 중심 내용을 말하기 위한 전체 조건으로 듣기 활동이나 읽기 활동이 말하기 활동 이전에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간단한 대상 묘사나 설명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수준에 해당하므로 초급 수준인 중학교 1학년의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낮은 비율로 제시된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A 교과서는 총 106개의 말하기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경험이나 의견 말하기’가 51.9%로 전체 말하기 활동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준은 34.9%의 비율을 차지한 ‘대상

이나 자료 묘사/설명'이었다. 또한 나머지 영역 성취 기준 중 '중심내용 말하기'는 2.8%, '세부내용 말하기'는 7.5%, '흐름 말하기'는 2.8%의 비율로 A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에 반영되고 있었다.

B 교과서는 총 85개로 5종 교과서 중 말하기 활동을 가장 적게 제시하고 있었으며 영역 성취 기준 중에서 '대상이나 자료 묘사 또는 설명'이 5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이어 '경험이나 의견 말하기'가 41.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합산해보면 91.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B는 향후 지나친 편중을 지양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성취 기준을 골고루 반영한 말하기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나머지 성취 기준의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중심내용 말하기'는 2.4%, '세부내용 말하기'는 2.4%, '흐름 말하기'는 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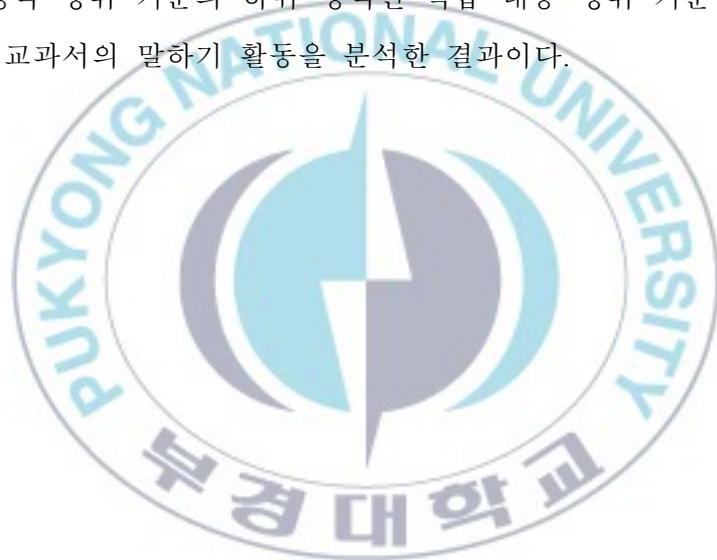
C 교과서는 총 122개의 말하기를 제시하였다. C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의 성취 기준 반영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이나 자료 묘사 또는 설명'이 68%로 과반수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중심내용 말하기'는 말하기 활동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세부내용 말하기'는 9.8%, '흐름 말하기'는 3.3%, '경험이나 의견 말하기'는 18.9%의 비율로 말하기 활동에 반영되고 있었다. 그 중 '세부내용 말하기'의 경우, 나머지 4종 교과서의 '세부내용 말하기' 비율과 비교하여 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D 교과서는 총 95개의 말하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전체 교과서 5종 중에서 영역 성취 기준 반영 비율이 가장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경험이나 의견 말하기'와 '대상이나 자료 묘사 또는 설명'이 각각 54.7%와 41.1%로 교과서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의 95.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심내용 말하기'와 '흐름 말하기'는 각각 0%씩, '세부내용 말하기'는 4.2%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D 교과서는 향후 보다 다양한 성취 기준이 골고루 반영된 말하기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E 교과서는 총 132개의 말하기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전체 5종 교과서 중 가장 많은 말하기 활동 수였다. 전체 132개의 말하기 활동에 반영된 영역 성취 기준 중에서 ‘대상이나 자료 묘사/설명’은 5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이어 ‘경험이나 의견 말하기’는 32.6%의 비율로 제시되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중심내용 말하기’는 2.3%, ‘세부내용 말하기’는 1.5%, ‘흐름 말하기’는 7.6%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 10>은 각 교과서의 성취 기준 반영 비율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영역 성취 기준의 하위 영역인 학습 내용 성취 기준에 따라 A, B, C, D, E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0> 학습 내용 성취 기준에 따른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 비교

성취기준 영역		교과서					평균
		A	B	C	D	E	
중심	학습내용						
	주요내용	1 (0.9%)	2 (2.4%)	-	-	-	1 (0.7%)
	주제 및 요지	2 (1.9%)	-	-	-	3 (2.3%)	1 (0.8%)
세부	세부내용	8 (7.5%)	2 (2.4%)	12 (9.8%)	4 (4.2%)	2 (1.5%)	6 (5.1%)
	다른입장	-	-	-	-	-	-
대상	대상묘사	20 (18.9%)	6 (7.1%)	5 (4.1%)	-	9 (6.8%)	8 (7.4%)
	좋아하거나 싫은 이유	5 (4.7%)	2 (2.4%)	-	-	3 (2.3%)	2 (1.9%)
	순서설명	5 (4.7%)	-	-	-	-	1 (0.9%)
	실물,그림, 도표	4 (3.8%)	29 (34.1%)	76 (62.3%)	35 (36.8%)	53 (40.2%)	39 (35.4%)
	문제해결 절차 방법	2 (1.9%)	6 (7.1%)	2 (1.6%)	3 (3.2%)	9 (6.8%)	4 (4.1%)
흐름	이어질 내용	3 (2.8%)	3 (3.5%)	4 (3.3%)	-	10 (7.6%)	4 (3.4%)
	추측 사건의 원인과 결과	-	-	-	-	-	-
	경험이나 계획	13 (12.3%)	11 (12.9%)	12 (9.8%)	7 (7.4%)	17 (12.9%)	12 (11.1%)
경험	느낌이나 의견	17 (16%)	12 (14.1%)	9 (7.4%)	13 (13.7%)	16 (12.1%)	13 (12.7%)
	역할극	26 (24.5%)	12 (14.1%)	2 (1.6%)	33 (34.7%)	10 (7.6%)	17 (16.5%)
	전체	106 (100%)	85 (100%)	122 (100%)	95 (100%)	132 (100%)	108 (100%)

<표 10>은 각 영역 성취 기준의 하위 영역인 학습 내용 성취 기준에 따라 5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A 교과서를 제외한 B, C, D, E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은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주제에 관한 실물, 그림, 도표 등의 자료를 간단히 묘사하기’가 각각 34.1%, 62.3%, 36.8%, 40.2%, 35.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되었다. 반면, A 교과서에서는 ‘경험이나 의견말하기’의 하위 항목인 ‘간단한 역할극 수행하기’가 24.5%로 교과서 내 학습 내용 성취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세부 내용 말하기’와 ‘흐름 말하기’의 각각의 하위 성취 기준인 ‘세부 내용 말하기’와 ‘사건의 원인과 결과 묻고 답하기’는 5종 교과서 모두 말하기 활동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과서 중 가장 편중된 경향을 보인 교과서는 D 교과서이며, 전체 14개의 학습 내용 성취 기준 중에서 단 6개의 성취 기준만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에 반영시켰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부내용 말하기’는 4.2%, ‘실물, 그림, 도표 등의 자료를 간단히 설명하기’는 36.8%,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묻고 답하기’는 3.2%, ‘경험이나 계획말하기’는 7.4%, ‘느낌이나 의견 말하기’는 13.7%, ‘역할극 수행하기’는 34.7%로 제시하였으나 나머지 8개의 성취 기준은 전부 0%의 반영 비율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2013년에 출판된 12종의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중 임의로 선택한 5종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에 반영된 성취 기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대상이나 자료 묘사하거나 설명’과 ‘경험이나 의견 말하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중학교 과정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과서별로 각 성취 기준의 반영 정도와 여부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 소재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전인재(2006)의 분석 기준과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소재 목록을 참고하여 그것을 8가지 상위 소재로 재분류하고 그 반영 비율을 교과서별로 분석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구체적인 하위 소재에 따른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의 분석 결과는 <부록 1> 참조).

<표 11> 상위 소재에 따른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 비교

교과서	A	B	C	D	E	평균
상위소재						
일상생활	66 (62.3%)	46 (54.1%)	68 (55.7%)	54 (56.8%)	76 (57.6%)	62 (57.3%)
오락·여가	12 (11.3%)	9 (10.6%)	25 (20.5%)	12 (12.6%)	25 (18.9%)	17 (14.8%)
자연이해	9 (8.5%)	8 (9.4%)	9 (7.4%)	9 (9.5%)	5 (3.8%)	8 (7.7%)
문화이해	2 (1.9%)	6 (7.1%)	1 (0.8%)	-	5 (3.8%)	3 (2.7%)
예술, 창의력신장	6 (5.7%)	4 (4.7%)	2 (1.6%)	6 (6.3%)	12 (9.1%)	6 (5.5%)
미래사회 적응	1 (0.9%)	-	4 (3.3%)	3 (3.2%)	1 (0.8%)	2 (1.6%)
세계 민주 시민	8 (7.5%)	5 (5.9%)	11 (9.0%)	10 (10.5%)	6 (4.5%)	8 (7.5%)
일반교양 및 학문적 소양	2 (1.9%)	7 (8.2%)	2 (1.6%)	1 (1.1%)	2 (1.5%)	3 (2.9%)
전체	106 (100%)	85 (100%)	122 (100%)	95 (100%)	132 (100%)	108 (100%)

임의로 선정한 5종 교과서 A, B, C, D, E를 살펴보면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상위 소재 중 ‘일상생활’이

각각 62.3%, 54.1%, 55.7%, 56.8%, 57.6%로 교과서 내의 말하기 활동의 과반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재는 ‘오락·여가’이며, 교과서별 비율은 알파벳 순서대로 각각 11.3%, 10.6%, 20.5%, 12.6%, 18.9%, 14.8%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A 교과서는 ‘일상생활’이 교과서 내의 말하기 활동의 소재로 62.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체 5종 교과서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소재는 ‘미래사회 적응’이었다. 나머지 소재들의 교과서 내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오락·여가’가 11.3%, ‘자연이해’가 8.5%, ‘문화 이해’가 1.9%, ‘예술, 창의력 신장’이 5.7%, ‘미래사회 적응’이 0.9%, ‘세계 민주 시민’이 7.5%, ‘일반교양 및 학문적 소양’이 1.9%를 차지했다.

B 교과서는 ‘일상생활’이 5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미래사회 적응’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 한계점을 보였다. B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의 나머지 소재들의 분포는 오락·여가’가 10.6%, ‘자연이해’가 9.4%, ‘문화 이해’가 7.1%, ‘예술, 창의력 신장’이 4.7%, ‘세계 민주 시민’이 5.9%, ‘일반교양 및 학문적 소양’이 1.9%를 차지했다.

C 교과서 역시 ‘일상생활’이 55.7%의 비율로 제시되어 교과서 내의 말하기 활동의 소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C 교과서의 나머지 소재들의 교과서 내 비율을 살펴보면, 오락·여가’가 20.5%, ‘자연이해’가 7.4%, ‘문화 이해’가 0.8%, ‘예술, 창의력 신장’이 1.6%, ‘미래사회 적응’이 3.3%, ‘세계 민주 시민’이 9.0%, ‘일반교양 및 학문적 소양’이 1.6%를 차지했다.

D 교과서는 ‘일상생활’을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의 말하기 활동 소재로 제시하였으나, 말하기 활동의 소재로 ‘문화 이해’를 돕는 소재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교과서 내에 제시된 나머지 말하기 활동 소재들을 살펴보면 오락·여가’가 12.6%, ‘자연이해’가 9.5%, ‘예술, 창의력 신장’이 6.3%, ‘미래 사회 적응’이 3.2%, ‘세계 민주 시민’이 10.5%, ‘일반교양 및 학문적 소양’이 1.1%를 차지했다.

E 교과서는 ‘일상생활’을 57.6%, 오락·여가’가 18.9%, ‘자연이해’가 3.8%, ‘문화 이해’가 3.8%, ‘예술, 창의력 신장’이 9.1%, ‘미래사회 적응’이 0.8%, ‘세계 민주 시민’이 4.5%, ‘일반 교양 및 학문적 소양’이 1.5%를 차지했다.

개정된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 12종 중 임의로 선정한 전체 5종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의 소재를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세계 민주 시민’이 평균 7.48%의 비율로 제시된 점을 미루어 보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술·창의력신장’과 ‘미래사회 적응’, ‘문화이해’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소재들이 학년에 따라 다른 비율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2, 3학년 교과서에서는 더 높은 비율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4.3 입력자료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전인재(2006)의 말하기 과업 분석 기준에 따라 2013년 출판된 중학교 1학년 개정 영어 교과서 12종 중 임의로 선정한 5종의 말하기 활동의 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각각 <표 12>와 <표 13>에 제시하였다.

4.3.1 언어적 입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언어적 입력에 따라 각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언어적 입력에 따른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 비교

언어적 입력 \ 교과서	A	B	C	D	E	평균
대화체	56 (52.8%)	36 (42.4%)	52 (42.6%)	57 (60.0%)	73 (55.3%)	55 (50.6%)
비대화체	18 (17.0%)	16 (28.8%)	22 (18.0%)	2 (2.1%)	23 (17.4%)	16 (14.7%)
일방적 연습지시	13 (12.3%)	19 (22.4%)	40 (32.8%)	24 (25.3%)	20 (15.2%)	23 (21.6%)
참여적 활동안내	19 (17.9%)	14 (16.5%)	8 (6.6%)	12 (12.6%)	16 (12.1%)	14 (13.1%)
전체	106 (100%)	85 (100%)	122 (100%)	95 (100%)	132 (100%)	108 (100%)

언어적 입력은 A, B, C, D, E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의 안내문과 말하기 활동에 포함된 모든 언어적 입력 자료를 분석 단위로 삼고 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언어적 입력은 ‘대화체’가 5종 교과서 평균 5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대화체가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입력 자료로 간주되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참여적 활동안내’는 전체적으로 13.1%의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A 교과서는 ‘대화체’가 5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비대화체’는 17.0%, ‘일방적 연습지시’는 12.3%, ‘참여적 활동 안내’가

17.9%를 차지했다. 따라서 ‘대화체’를 제외한 나머지 입력 자료의 분포 비율을 고른 편이었다.

B 교과서는 ‘대화체’가 42.4%로 가장 높은 비율의 입력 자료로 제시되었으며, ‘비대화체’가 28.8%, ‘일방적 연습지시’가 22.4%, ‘참여적 활동 안내’가 16.5%로 나머지 교과서들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고른 비율 분포를 보였다.

C 교과서 역시 말하기 활동의 언어적 입력 자료로 ‘대화체’가 가장 높은 42.6%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일방적 연습지시’가 32.8%로 나머지 A, B, D, E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말하기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지시하기 보다는 보다 자연스러운 언어적 입력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교과서 제작 시에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D 교과서는 ‘대화체’가 60%로 5종 교과서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일방적 연습지시’가 25.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적 활동 안내’와 ‘비대화체’는 각각 6.6%, 2.1%로 제시되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제작 시 다양한 입력 자료를 고르게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 교과서는 ‘대화체’가 5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나머지 언어적 입력은 ‘비대화체’가 17.4%, ‘일방적 연습 지시’가 15.2%, ‘참여적 활동 안내’가 12.6%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Bachman(1990)에 따르면 ‘화용적 능력(pragmatic competence)’은 언어 능력에 포함되는 중요한 능력이며, 이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는 화자와 청자의 적절한 언어 사용 능력이다. 따라서 말하기 활동의 언어적 입력 자료를 대화체로 제시하는 것은 말하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맥락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을 제공한다.

4.3.2 비언어적 입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비언어적 입력에 따라 각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비언어적 입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비교

교과서 비언어적입력	A	B	C	D	E	평균
만화적 삽화	46 (43.4%)	33 (38.8%)	50 (41.0%)	33 (34.7%)	66 (50.0%)	46 (41.6%)
사실적 사진	35 (33.0%)	26 (30.6%)	53 (43.4%)	29 (30.5%)	58 (43.9%)	40 (36.3%)
실용적 안내표지	1 (0.9%)	2 (2.4%)	2 (1.6%)	5 (5.3%)	-	2 (2.0%)
도표 및 기타	24 (22.6%)	24 (28.2%)	17 (13.9%)	28 (29.5%)	8 (6.1%)	20 (20.1%)
전체	106 (100%)	85 (100%)	122 (100%)	95 (100%)	132 (100%)	108 (100%)

전체 12종 중 임의로 선정한 5종의 중학교 1학년 개정 영어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을 살펴보면, 비언어적 입력은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화적 삽화’가 평균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 비언어적 입력 자료는 36.6%로 ‘사실적 사진’이었다. 비언어적 입력 자료로 만화나 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보다 친숙한 소재를 직접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쉽고 자연스러운 말하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된다. 한편, ‘실용적 안내표지’는 평균 2.0%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A 교과서는 ‘만화적 삽화’가 43.4%로 교과서 내의 말하기 활동의 비언어적 입력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실적 사진’이 33.0%, ‘도표 및 기타’가 22.6%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용적 안내 표지는 0.9%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B 교과서는 ‘만화적 삽화’가 38.8%, ‘사실적 사진’이 30.6%, ‘실용적 안내 표지’가 2.4%, ‘도표 및 기타’가 28.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C 교과서는 ‘사실적 사진’이 43.4%로 교과서 내 말하기 활동의 비언어적 입력자료로 가장 높은 비율로 제시되었다. ‘만화적 삽화’는 41.0%로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실용적 안내표지’가 1.6%, ‘도표 및 기타’가 13.9%의 비율로 제시되었다.

D 교과서는 5종 교과서 중 가장 높은 비언어적 입력 자료의 분포를 보였는데, ‘만화적 삽화’가 34.7%, ‘사실적 사진’이 30.5%, ‘실용적 안내표지’는 5.3%, ‘도표 및 기타’가 29.5%를 차지했다.

E 교과서는 교과서 내의 말하기 활동의 비언어적 입력 자료로 ‘만화적 삽화’와 ‘사실적 사진’이 각각 50%, 43.9%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실용적 표지’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도표 및 기타’역시 6.1%로 매우 낮은 비율로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제작 시 좀 더 다양한 비언어적 자료를 고르게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교과서 5종의 평균적인 비언어적 입력의 비율은 ‘만화적 삽화’가 전체에서 총 41.6%의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이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 비언어적 입력은 ‘사실적 사진’으로 전체 비율 중 총 36.3%를 차지했다. 이 두 항목의 비율이 높은 것은 말하기 활동의 비언어적 입력으로 삽화와 사진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말하기 활동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된다.

4.4 조직환경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조직환경에 따라 각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조직환경에 따른 말하기 활동 비교

교과서 조직	A	B	C	D	E	평균
개별활동	33 (31.1%)	9 (10.6%)	54 (44.3%)	23 (24.2%)	29 (22.0%)	30 (26.4%)
짝활동	56 (52.8%)	42 (49.4%)	44 (36.1%)	53 (55.8%)	78 (59.1%)	55 (50.6%)
모둠활동	17 (16.0%)	34 (40.0%)	24 (19.7%)	19 (20.0%)	25 (18.9%)	24 (22.9%)
전체	106 (100%)	85 (100%)	122 (100%)	95 (100%)	132 (100%)	108 (100%)

A 교과서는 ‘짝활동’이 5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개별활동’은 31.1%, ‘모둠활동’은 16%를 차지했다. 이는 ‘모둠활동’에 비해 ‘개별활동’이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B 교과서는 ‘짝활동’이 49.4%로 교과서 내의 조직 환경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모둠활동’이 40%로 제시되어 A, C, D, E 교과서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별활동’은 10.6%로 다른 교과서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A 교과서부터 B 교과서까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환경에 따른 말하기 활동의 항목수와 비율은 ‘짝활동’이 평균 5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상호작용적 말하기 활동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된다. 한편, 근소한 차이로 개별활동이 모둠활동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별 학습자에게 말하기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나 Vygotsky(1978)과 Long(1985, 1996)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 학습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제시되는 ‘모둠활동’의 비율이 향후 보다 더 증가될 필요가 있다.

한편, C 교과서는 교과서 내의 말하기 활동의 조직환경으로 ‘개별활동’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짝활동’과 ‘모둠활동’은 각각 36.1%, 19.7%로 제시되었다. C 교과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인 언어학습을 위해서 ‘개별 활동’보다는 ‘짝활동’이나 ‘모둠활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D 교과서는 ‘짝활동’이 55.8%, ‘개별활동’은 24.2%, ‘모둠활동’은 20%를 차지했다. 이는 교과서 내에서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 비율이다.

E 교과서는 나머지 4종 교과서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율인 59.1%로 ‘짝활동’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개별활동은 ‘22%, ’모둠활동‘은 18.9%로 제시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짝활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개별활동과 모둠활동은 비슷한 비율로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에 포함되었었다. 그러나 개별 교과서를 분석해본 결과, 교과서별로 말하기 활동의 조직환경의 제시 비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선정된 5종 교과서 중 짝이나 모둠활동 등을 통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말하기 조직 환경의 빈도수보다 개별 말하기 연습을 제시하는 빈도수가 더 많은 교과서들이 있었다. 이는 향후 상호작용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더 많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4.5 활동유형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결과

활동유형에 따라 각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활동유형에 따른 말하기 활동 비교

교과서 활동유형	A	B	C	D	E	평균
시청각 관련	13 (12.3%)	-	30 (24.6%)	31 (32.6%)	4 (3.0%)	16 (14.5%)
의사소통관련	79 (74.5%)	66 (77.6%)	83 (68.0%)	52 (54.7%)	93 (70.5%)	75 (69.1%)
가치판단관련	4 (3.8%)	5 (5.9%)	-	-	6 (4.5%)	3 (2.8%)
창의적 문제해결	10 (9.4%)	14 (16.5%)	9 (7.4%)	12 (12.6%)	29 (22.0%)	15 (13.6%)
전체	106 (100%)	85 (100%)	122 (100%)	95 (100%)	132 (100%)	108 (100%)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5종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을 활동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관련’ 말하기 활동이 평균 6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적 가치를 지닌 만큼 의사소통 관련 말하기 활동을 가장 많이 제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치판단관련’ 말하기 활동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초급 수준인 중학교 1학년의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A 교과서는 ‘의사소통관련’활동이 74.5%를 차지했으며 이는 교과서 내의 말하기 활동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청각 관련’활동

은 12.3%, ‘가치판단관련’활동은 3.8%, ‘창의적 문제해결’활동은 9.4%로 제시되었다.

B 교과서는 ‘의사소통관련’활동이 77.6%를 차지했으며, 이는 교과서 내의 말하기 활동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5종 교과서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치판단관련’활동은 5.9%, ‘창의적 문제해결’활동은 16.5%로 제시하고 있었지만 ‘시청각 관련’활동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C 교과서는 ‘의사소통관련’활동이 68%로 교과서 내의 말하기 활동 유형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시청각 관련’활동과 ‘창의적 문제해결’활동도 각각 24.6%, 7.4%의 비율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치판단’과 관련된 활동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D 교과서는 ‘의사소통관련’활동이 54.7%, ‘시청각 관련’활동이 32.6%, ‘창의적 문제해결’활동이 12.6%로 제시되었지만 C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가치판단관련’활동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E 교과서는 ‘의사소통 관련’활동이 70.5%, ‘시청각관련’활동이 3%, ‘가치판단관련’활동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창의적 문제해결’활동이 22%로 다른 4종 교과서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제시되었다.

전체 5종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의 유형은 교과서 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의사소통관련’활동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방향인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향후 ‘창의적 문제해결’유형이 좀 더 높은 비율로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6 언어기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언어기능에 따라 각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언어기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비교

교과서 언어기능	A	B	C	D	E	평균
S	25 (23.6%)	32 (37.6%)	61 (50.0%)	39 (41.1%)	62 (47.0%)	44 (39.9%)
L+S	11 (10.4%)	1 (1.2%)	35 (28.7%)	11 (11.6%)	-	12 (10.4%)
R+S	35 (33.0%)	11 (12.9%)	6 (4.9%)	13 (13.6%)	38 (28.8%)	21 (18.7%)
W+S	19 (17.9%)	17 (20.0%)	16 (13.1%)	5 (5.3%)	11 (8.3%)	14 (12.9%)
R+W+S	16 (15.1%)	23 (27.1%)	4 (3.3%)	3 (3.2%)	21 (15.9%)	13 (12.9%)
L+R+S	-	-	-	1 (1.1%)	-	-
L+W+S	-	1 (1.2%)	-	14 (14.7%)	-	3 (3.2%)
R+L+W+S	-	-	-	9 (9.5%)	-	2 (1.9%)
전체	106 (100%)	85 (100%)	122 (100%)	95 (100%)	132 (100%)	108 (100%)

2013년 출판된 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전체 12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5종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 분석한 결과, 말하기 활동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언어 기능은 평균 39%을 차지한 ‘개별 말하기 기능’이다. 2 기능 연계 활동 역시 그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3기능 연계 활동과 4

기능 연계 활동은 낮은 비율로 제시되었다.

A 교과서는 ‘읽고 말하기’를 33%로 가장 높은 비율로 교과서 내 말하기 활동에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개별 말하기 기능’은 23.6%, ‘듣고 말하기’는 10.4%, ‘쓰고 말하기’를 17.9%, ‘읽고 쓰고 말하기’를 15.1%의 비율로 말하기 활동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듣고 읽고 말하기’와 ‘듣고 쓰고 말하기’, ‘읽고 듣고 쓰고 말하기’는 말하기 활동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B 교과서는 ‘개별 말하기 기능’을 37.6%의 비율로 가장 많이 말하기 활동에 제시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27.1%를 차지한 언어 기능은 ‘읽고 쓰고 말하기’였다. 이 외에도 ‘듣고 말하기’는 1.2%, ‘읽고 말하기’는 12.9%, ‘쓰고 말하기’는 20%, ‘듣고 쓰고 말하기’는 1.2%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듣고 읽고 말하기’와 4기능이 연계된 말하기 활동은 제시하지 않았다.

C 교과서는 ‘개별 말하기 기능’을 50%로 교과서 내의 말하기 활동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5종 교과서의 ‘개별 말하기 기능’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또한 ‘듣고 말하기’, ‘읽고 말하기’, ‘쓰고 말하기’를 각각 28.7%, 4.9%, 13.1%로 제시하고 있었지만, 3기능 이상이 연계된 말하기 활동은 1.2%로 제시된 ‘읽고 쓰고 말하기’를 제외하고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D 교과서는 ‘개별 말하기 기능’을 41.1%의 비율로 제시하여 교과서 내의 말하기 활동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D 교과서는 전체 분석 교과서 5종 중에서 가장 고른 언어 기능 분포를 보였다. 2기능이 연계된 말하기 활동은 ‘듣고 말하기’가 11.6%, ‘읽고 말하기’가 13.6%, ‘쓰고 말하기’가 5.3%로 제시되었으며 3기능이 연계된 말하기 활동은 ‘읽고 쓰고 말하기’가 3.2%, ‘듣고 쓰고 말하기’가 1.1%, ‘듣고 쓰고 말하기’가 14.7%였다. 특히, 4기능이 연계된 말하기 활동도 충분히 제시되었는데 그 비율은

9.5%로 A, B, C, E 교과서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E 교과서는 ‘개별 말하기 기능’을 47.7%, ‘읽고 말하기’를 28.8%, ‘쓰고 말하기’를 8.3%, ‘읽고 쓰고 말하기’를 15.9%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듣기와 결합된 말하기 활동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에 제시된 언어기능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개별 말하기 기능’을 높은 비율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개별 말하기 기능을 충분히 연습할 기회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말하기와 타기능이 연계되어 일어나는 실제 의사소통과 같은 자연스러운 상황과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말하기와 타 기능이 연계된 활동을 더 많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4.7 의사소통기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분석

의사소통기능에 따라 각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의사소통기능에 따른 말하기 활동 비교

교과서 의사소통기능	A	B	C	D	E	평균
친교활동	47 (44.3%)	28 (32.9%)	15 (12.3%)	24 (25.3%)	29 (22.0%)	29 (27.4%)
사실적 정보교환	30 (28.3%)	34 (40.0%)	62 (50.8%)	26 (27.4%)	50 (37.9%)	40 (36.9%)
지적태도표현	1 (0.9%)	-	2 (1.6%)	7 (7.4%)	7 (5.3%)	3 (3.1%)
감정 표현	9 (8.5%)	-	5 (4.1%)	9 (9.5%)	6 (4.5%)	6 (5.3%)
도덕적 태도 표현	4 (3.8%)	6 (7.1%)	10 (8.2%)	8 (8.4%)	5 (3.8%)	7 (6.2%)
지시와 권고	8 (7.5%)	7 (8.2%)	7 (5.7%)	6 (6.3%)	8 (6.1%)	7 (6.8%)
상상하기	7 (6.6%)	10 (11.8%)	21 (17.2%)	15 (15.8%)	27 (20.5%)	16 (14.4%)
전체	106 (100%)	85 (100%)	122 (100%)	95 (100%)	132 (100%)	108 (100%)

본 연구에서 선정한 A 교과서에서 E 교과서까지의 말하기 활동 중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의사소통기능은 ‘사실적 정보교환’이었다. 이는 성취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대상이나 자료를 묘사하거나 설명하기’와 일치하는 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상이나 자료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의사소통기능 중 ‘사실적 정보교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낮은 비율로 제시된 의사소통기능은 3.1%를 차지한 ‘지적태도표현’이었다.

구체적으로, A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내의 말하기 활동으로 의사소통 기능 중 ‘친교활동’이 가장 높은 비율인 44.3%를 차지하는 반면, ‘지적태도표현’이 0.9%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 ‘사실적 정보교환’이 28.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감정표현’이 8.5%, ‘도덕

적 태도 표현'이 3.8%, '지시와 권고'가 7.5%, '상상하기'가 6.6%를 차지하고 있었다.

B 교과서는 '사실적 정보교환'이 40%의 비율로 교과서 내의 말하기 활동에서 가장 많은 의사소통기능에 해당했다. 또한 '친교활동'도 32.9%로 제시되었으며 '도덕적 태도표현', '지시와 권고', '상상하기'가 각각 7.1%, 8.2%, 11.8%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지적태도표현'과 '감정표현'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C 교과서는 '사실적 정보 교환'이 50.8%로 교과서 내 말하기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의사소통 기능이였다. 이는 나머지 4종 교과서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 교과서 내 말하기 활동에 제시된 다른 의사소통기능은 '친교활동'이 12.3%, '지적태도표현'이 1.6%, '감정 표현'이 4.1%, '도덕적 태도표현'이 8.2%, '지시와 권고'가 5.7%, '상상하기'가 17.2%를 차지했다.

D 교과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사실적 정보교환'이 27.4%, '친교활동'이 25.3%로 서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적태도 표현'은 7.4%, '감정표현'은 9.5%, '도덕적 태도표현'은 8.4%, '상상하기'는 15.8%를 차지했다.

E 교과서는 '사실적 정보교환'이 37.9%로 교과서 내 말하기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친교활동'이 22%, '지적태도 표현하기'가 5.3%, '감정표현'이 4.5%, '도덕적 태도표현'이 3.8%, '지시와 권고'가 6.1%를 차지했다. 특히, '상상하기'가 교과서에 20.5%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나머지 4종 교과서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A 교과서부터 E 교과서까지 5종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친교활동'을 가장 높은 비율로 제시하는 교과서도 있고, '사실적 정보교환'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특히, E 교과서는 ‘상상하기’ 기능이 나머지 4종 교과서에 비해 가장 많이 제시되어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적 인성 함양’과 부합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교과서 전체로 보면 ‘지적태도표현’이나 ‘감정표현’, ‘도덕적 태도표현’과 같이 자신을 표현하는 기능은 다른 의사소통 기능과 비교하여 낮은 비율로 제시되어 향후 교과서 개발·제작 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3년 출판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12종 중에서 무작위로 5종을 선택하여 각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말하기 활동과 말하기를 포함하는 모든 활동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군 단위의 성취기준 반영여부의 조사 결과, 선정된 5종 교과서가 상이한 분포 비율을 보였다. 비교적 높은 분포로 성취기준을 말하기 활동에 반영한 교과서도 있는 반면, 5개의 중학교 1~3학년군 말하기 성취기준에서 1~2개의 성취기준을 누락시킨 교과서도 나타났다. 이는 일부 성취기준이 말하기 활동에 편중되는 현상을 야기하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말하기 활동의 경험을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 5종 교과서 전체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의 초급 수준의 말하기 능력을 고려하여 비교적 쉽고 간단한 말하기 성취기준들이 말하기 활동에 더 많은 비율로 반영되어 있었다.

둘째, 소재에 따라 말하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일상생활’이 가장 높은 비율인 57.3%를 차지하였으며, ‘오락·여가’가 14.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친숙하고 흥미로운 소재 제시의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예상되며, 중학교 1학년의 수준을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력 신장’과 ‘문화 이해’에 관한 소재가 포함된 말하기 활동은 각각 5.5%, 2.7%의 미미한 비율로 제시되었다. 이는 중학교 교육 과정을 1~3학년군으로 묶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소재항목들을 각 학년에 적절히 분배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학년이 올라 갈수록 ‘창의력 신장’과 ‘문화 이해’의 소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입력자료에 따라 말하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 언어적 입력으로는 대화체가 50.6%로 5종 교과서의 평균 언어적 입력자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비언어적 입력으로 만화적 삽화가 평균 41.6%, 사실적 사진이 평균 36.3%로 비교적 대등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말하기 활동의 구체적인 입력 자료의 형태로 학습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넷째, 조직환경에 따른 말하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 짝활동이 5종 교과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50.6%를 차지하였다. 개별활동은 26.4%, 모둠활동은 22.9%를 차지하였으나, 학생들의 보다 효과적인 말하기 학습을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직 환경인 모둠 활동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활동유형에 따라 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관련 말하기 활동이 평균 6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시청각 관련활동, 가치판단활동, 창의적 문제해결은 각각 14.5%, 13.6%, 2.8%를 차지하고 있었다. 말하기 활동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활동 유형의 다양화와 고른 분포 비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 문제해결 유형을 보다 더 높은 비율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언어기능에 따라 말하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 가장 다양하게 언어기능을 연계하여 말하기 활동을 제시한 교과서는 D 교과서였으나, 5종 교과서 평균적으로 개별 말하기 기능을 포함하는 말하기 활동이 3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언어기능의 연계는 보다 실제 말하기 상황과 비슷한 자연스러운 맥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말하기와 타 기능을 연계한 말하기 활동을 더 많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의사소통기능에 따라 말하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 사실적 정보교환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36.9%를 차지했다. 친교활동이 뒤를 이어 27.4%의 비율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 상상하기는 14.4%로 제시되었으며, 지적태도표현, 감정표현, 도덕적 태도표현, 지시와 권고는 각각 3.1%, 5.3%, 6.2%, 6.8% 등 낮은 비율로 제시되었다.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3학년 교과서에 사실적 정보교환 이외의 다른 의사소통 기능들의 비율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이 균형있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명확한 성취 기준을 반영하여 말하기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불분명하거나 편중된 성취 기준을 교과서에 반영할 경우, 교사가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영어 말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어느 일부 요소에 치우쳐서 말하기 능력이 발달할 수 있으므로 성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다양하게 반영한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소재와 구성이 다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창의력의 신장이나 타문화 이해에 대한 소재를 보충하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둠 활동 형태의 말하기 활동을 더 많이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덕적 판단능력이나 가치 판단 능력 등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소재와 활동유형이 더욱 더 많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a).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b). 2009개정 초중등학교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4].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권미숙. (2009). 한국, 중국, 일본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비교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김금선, 김태은, 김혜영, 차경환. (2011). 중학생 듣기·말하기 학습을 위한 영어자율학습센터의 설계 및 적용.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7(2), 1-26.
- 김미경, 임찬빈, 주형미, 이영주, 김성혜, 송민영, 박지선, 이영아, 김인석, 이현우, 김영숙, 강성우, 김연희, 박한준, 조지형, 박제운, 안희성.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부연. (2006). 중학교 영어 교과서 과업 분석. *영어교과교육*, 5(1), 89-108.
- 김은주. (2001).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듣기·말하기 활동 분석 연구. *영어교육*, 56(2), 219-243.
- 나경희, 송희심. (2010).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읽기 활동 분석. *외국어교육*, 17(2), 145-173.
- 남동식, 박매란. (2005). 영어 교재에 사용된 시각 자료 비교 연구. *영어어문교육*, 11(1), 99-118.
- 박제은, 안태연. (2013). 고등학교 영어 말하기 수업모형 개발 연구: NEAT

- 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25(3), 303-324.
- 박점복. (1998).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활동자료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박지선, 이문복. (2012). NEAT 말하기·쓰기 평가 도입에 대비한 고등학교 영어 말하기·쓰기 교수·학습 현황 분석. *Modern English Education*, 13(2), 121-149.
- 박현식. (2013).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 배두분. (2006). 최근 동향에 따른 외국어 교재 개발 이론과 실제. 한국외국어교육학회(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pp. 37-48). 서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부경순, 이완기, 이정원, 최연희. (2003). 수업관찰과 면담을 통해 살펴본 초·중등 영어 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영어교육*, 58(2), 3-35.
- 신동일. (2005). 영어말하기 평가와 담화연구. *사회언어학*, 13, 107-128.
- 오준일. (2006). 영어 말하기 능력 절대 등급 설정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18(1), 141-162.
- 이의갑. (2007). 초등영어 교과서의 언어재료 분석 연구. *초등영어교육*, 13(3), 125-146.
- 임찬빈, 진경애, 이문복, 장경숙, 김미경, 이병천, 김성혜, 권오량, 김인석, 이현우, 오준일, 김영숙, 이성희, 이병민, 박한준, 한정희, 백인환. (2011).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주형미, 김성혜, 이영아, 윤지환. (2011).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초·중등 영어 교과서 개선 연구: 구성체제 및 내용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RRO=2011-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인재. (2006).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과업활동 자료 분석. *영어어문교육*, 12(4), 253-276.
- Bachman, L.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ng, M. (1985). Inpu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In S.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377-393). Rowley, MA: Newbury House.
- Long, M. (1996). The role of the linguistic enviro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W. Ritchie & T. Bhatia (Eds.),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413-468). San Diego: Academic Press.
- Murphy, J. (1991). Oral communication in TESOL integrating speaking, listening, and pronunciation. *TESOL Quarterly*, 25(1), 51-75.
- Meurant, R. (2010). EFL/ESL textbook selection in Korea and East Asia-relevant issues and literature review. In G. S. Tomar, W. I. Grosky, T. Kim, S. Mohammed & S. Saha (Eds.), *Ubiquitous computing and multimedia applications* (pp. 89-102). Berlin: Springer.
- Pica, T., Kanagy, R., & Falodun, J. (1993). *Choosing and using communication tasks for second language instruc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Swain, M. (2000). The output hypothesis and beyond: Mediating acquisition through collaborative dialogue. In J. Lantolf (Ed.), *Sociocultural theor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pp. 97-11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wain, M., & Lapkin. (1995). Problems in output and cognitive process they generate: A step toward second language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16(3), 371-391.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illis, J. (1996). *A framework for task-based learning*. London: Longman Press.

<분석 대상 교과서>

권오량, 이문우, 최문영, 정운경, 양소영, 박리원, Gray, E. R. (2013).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교학사.

김성곤, 윤정미, 강은경, 이희경, 유원호, 윤여경, 장성욱, 주혜연, 박성민, 손지선, Haas, J. L. (2013).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두산동아.

김진완, 안병규, 오준일, 김순천, 박성근, 신수진, 조성욱, 조현정, 김보라, Yin, J. (2013).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육.

민찬규, 정현성, 김윤규, 이상기, 염지선, 박세미, 성상희, 김성민, 박세란, 이용현, Foreman, W. A. (2013).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금성출판사.

양현권, 황종배, 이창수, 민병천, 김태영, 이동환, 이주연, 박은경, 정경아, 김민영. (2013).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지학사.

부록 1

하위 소재에 따른 교과서별 말하기 활동 비교

소재 상위		교과서					평균
		A	B	C	D	E	
일상	하위항목	12	16	20	12	27	17
	일상생활	(11.3%)	(18.8%)	(16.4%)	(12.6%)	(20.5%)	(15.9%)
	가정생활	3	2	8	5	22	8
	학교생활	(2.8%)	(2.4%)	(6.6%)	(5.3%)	(16.7%)	(6.7%)
	사회생활	24	18	34	36	21	27
오락	여가선용	(22.6%)	(21.2%)	(27.9%)	(37.9%)	(15.9%)	(25.1%)
	자연현상	27	10	6	1	6	10
자연	환경보전	(25.5%)	(11.8%)	(4.9%)	(1.1%)	(4.5%)	(9.6%)
	영어문화권의 의사소통방식 타문화권의 일상생활	12	9	25	12	25	17
문화	언어적차이	(11.3%)	(10.6%)	(20.5%)	(12.6%)	(18.9%)	(14.8%)
	문화소개	9	4	9	9	5	7
	심미적	(8.5%)	(4.7%)	(7.4%)	(9.5%)	(3.8%)	(6.8%)
	변화하는사회	-	4	-	-	-	1
	개인복지증진	(4.7%)	-	-	-	-	(0.9%)
예술	세계시민의식	-	5	1	-	-	1
	공중도덕	-	(5.2%)	(1.6%)	-	-	(1.3%)
미래 사회	애국심	-	-	-	-	3	1
	일반교양	-	-	-	-	(2.3%)	(0.5%)
세계 민주	학문적소양	2	1	-	-	2	1
	합계	(1.9%)	(1.2%)	-	-	(1.5%)	(0.9%)
교양	합계	6	4	2	6	12	6
	합계	(6.6%)	(4.7%)	(1.6%)	(6.3%)	(9.1%)	(5.5%)
교양	합계	1	-	4	3	-	1
	합계	(0.9%)	-	(3.3%)	(3.2%)	(0.8%)	(0.2%)
교양	합계	1	-	-	-	-	-
	합계	(0.9%)	-	-	-	-	-
교양	합계	7	5	11	10	6	8
	합계	(6.6%)	(5.9%)	(9%)	(10.5%)	(4.5%)	(7.3%)
교양	합계	-	-	-	-	-	-
	합계	2	7	-	-	2	2
교양	합계	(1.9%)	(8.2%)	-	-	(1.5%)	(2.3%)
	합계	-	-	2	1	-	1
교양	합계	(1.6%)	(1.1%)	-	-	-	(0.5%)
	합계	106	85	122	95	132	108
교양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